

남북 공통의 역사 인식과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한국사교육의 방법 탐색

김남중
(고려대 강사)

- I. 머리말
- II. 남북한 한국사 교과서로 본 남북 공통 역사 인식
- III. 남북이 공유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전근대사 교육 방안
- IV. 근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사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국사를 전공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주제이다. 함석헌이 일제 강점기에 『성서조선』에 연재한 것을 광복 후 책으로 펴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는 그러한 고민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961년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제목을 바꾸어 다시 편찬되었는데, 여기서 함석헌은 성경의 사관은 아가페 사관으로 한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가페라고 하였다.¹⁾ 다만 한국인은自尊心이 없어 우리 민족의 본 바탕인 仁勇智를 제대로 키워 나가지 못하여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고 하였다.²⁾ 그러나 고난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며, 우리의 본 바탕이 드러나게 하고, 사명을 다할 자격자가 되도록 하고, 참 종교를 찾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³⁾ 또한 남을 박해한 일이 없고 不仁之心의 ‘착함’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명은 세계의 불의를 담당하여 불의가 결코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높이 올리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새 날을 바라보며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지구를 메고 순교자의 걸음을 걷는 것이라 하였다.⁴⁾ 고난을 강조한 함석헌의 주장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⁵⁾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아세아연합신학교 길군아세아연구기금의 지원 아래에 이루어진 길군강좌를 통해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만열은 복음 전래 이전의 한국사는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으며, 민족사와 구속사와의 관련을 통해 한국사의 기독교적 조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⁶⁾ 이로 인해 일반은총 차원에서 한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김정준은 한국사는 인간의 역사 중 하나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독교 전래 이전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⁷⁾ 또한 한국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참되고 바람직한 삶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책임을 우리에게도 지워주시기 위함이라 하였다.⁸⁾ 이원순⁹⁾은 복음 도래 이전 한민족의 역사는 분립에서 통일의 방향으로 전개

1) 咸錫憲, 『뜻으로 본 韓國歷史』, 第一出版社, 1964, 46, 71쪽.

2) 함석헌, 위의 책, 1964, 97~115쪽.

3) 함석헌, 위의 책, 1964, 390~395쪽.

4) 함석헌, 위의 책, 1964, 404~414쪽.

5) 박재우,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 역사관적 해석」, 『통합연구』 23, 1994, 81쪽.

6) 이만열, 「한국사 인식의 기독교적 조명」, 『基督教와 歷史解釋』,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60~66쪽.

7) 김정준,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基督教와 歷史解釋』,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106~115쪽.

8) 김정준, 위의 논문, 1994, 105~106쪽.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하였다. 또한 도덕적문화적 가치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 왕조와 개인의 흥망이 좌우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어 기독교적 사랑의 역사를 수용할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즉 한국사를 통해 기독교적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영재는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며 온전한 구속을 지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장이라 하였다.¹⁰⁾ 또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마음에 도덕률을 주셨기 때문에 각 민족을 이에 따라 다루고 심판하셨다고 하였다.¹¹⁾ 윤경로는 한국 근현대사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다루었는데,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하여 전파하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민족적 과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 근현대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하였다.¹²⁾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축복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통일 문제에도 입장설 것을 제안하였다.¹³⁾ 원종천은 한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인애와 공의를 기초로 한 도덕률과 사회정의에 대해 구속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특별은총과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⁴⁾ 다만 복음 전래 이전의 한국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속사적 방법론을 적용할 것을 언급하였다.¹⁵⁾ 손봉호는 기독교가 순환적 역사관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역사관을 갖게 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그로 인해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독교 전래 이전의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방식의 폭이 넓어졌으며,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한편, 박재우는 역사의 본질은 '인간이 이상사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 보고 기독교 역사관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연결시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 해석을 시도하고 한계점을 언급하였다.¹⁷⁾ 이흥기는 기독교 역사관을 통한 한국사 해석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역사를 보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독교적 역사 연구가 세계관 등에 대한 연구로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당부를 남겼다.¹⁸⁾

대체로 지금까지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도 제안하였다. 역사학은 과거에 멈춰 서 있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적 한국사 인식도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독교적 이상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철하 박사님은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을 추구한 목적에 대해 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모범을 보여 아세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길잡이 구실을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¹⁹⁾ 그리고 한국사가 나아갈 모델로 '기독교 한국'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중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출발하자고 하였다.²⁰⁾ '기독교 한국'의 모습은 칼빈과 웨슬리가 목표로 잡은 '기독교 세계, 즉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세계'에 두었다.²¹⁾

이 글은 그동안 한철하 박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된 길균 모임에 참여하면서 고민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9) 이원순,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基督教와 歷史解釋』,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124~128쪽.
 10) 김영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역사」, 『基督教와 歷史解釋』,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148~150쪽.
 11) 김영재, 위의 논문, 1994, 138~139쪽.
 12) 윤경로,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한국 근·현대사」, 『基督教와 歷史解釋』,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169~178쪽.
 13) 윤경로, 위의 논문, 1994, 178~180쪽.
 14) 원종천, 「한국사기독교해석방법론」, 『ACTS와 21세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244쪽
 15) 원종천, 위의 논문, 2004, 244~251쪽
 16) 손봉호,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적 역사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14~27쪽.
 17) 박재우, 앞의 논문, 1994, 98~103쪽.
 18) 이흥기, 「기독교 역사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신앙과 학문』 25, 2003, 84~90쪽.
 19) 한철하, 「서문 - 새 亞細亞 創造의 道具」, 『基督教와 歷史解釋』,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1994, 4~5쪽.
 20)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해설판, 칼빈아카데미, 출판부, 2016, 349~350쪽.
 21) 한철하, 위의 책, 2016, 338~339쪽.

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다. 한국사가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세계’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변적인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일반은총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한국인의 마음에도 도덕률을 부여하셨다는 점에서 한국사 안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들을 얻어 한국사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한국’ 안에는 통일 한국도 포함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은 한국사에 대한 인식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한국’의 이상은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한국사 교육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을 화합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남북의 한국사 인식을 먼저 살펴본 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소재나 가치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한국사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남북한 한국사 교과서의 특징과 남북의 공동 인식

남한의 한국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정으로 편찬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검인정 체제로 개편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것으로, 8종이 있다. 북한 교과서는 『조선력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2002년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1~6학년이 배우는 『조선력사』는 1-2권은 이야기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3~6권은 통사체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 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최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서술하면서 집필진의 사고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반면 북한 교과서는 역사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즉 총칭한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김일성의 ‘교사’나 김정일의 ‘말씀’을 본문 중에 제시하며 서술하고 있다.²²⁾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고구려-발해-고려-북한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을 부각시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의 주체를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으로 놓고 서술하였다. 또한 선동적이며 저속한 어휘를 사용하여 투쟁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으며,²³⁾ 고조선의 성립 시기를 대폭 끌어올리는 등 ‘김일성민족’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 이루어졌다.²⁴⁾ 반면 남한 교과서는 교회사에서 출판한 교과서가 약간 목적의식이 담겨 있는데,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무엇인지 비교하여 서술하는 정도에 그칠 따름이다.²⁵⁾ 다른 교과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제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상의 차이로 남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에도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남북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괴리도 커져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비율이 낮다.²⁶⁾ 또한 남한 교과서는 현대사까지 다루고 있는 반면 북한 교과서는 1926년을 조선 혁명이 시작된 시기로 보고 『조선력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과목에서 다루며, 일제 식민지 지배를 1910년 경술국치가 아닌 그 이전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과 묶어서 다루고 있다.²⁷⁾ 통일 신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고려를 우리 민족의 첫 통일 국가로 보았다.²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역사인식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

22) 이찬희, 「북한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내용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2004, 215~218쪽.

23) 유영옥,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역사교과서 비교연구」, 『京畿行政論文』 17, 2003, 54~56쪽.

24) 이정빈,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김일성민족’의 단군」,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 85~92쪽.

25) 권희영 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4, 320쪽.

26) 김선규 외,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 교육과학사, 2000, 291쪽.

27) 김한중, 「북한의 일제통치기 인식과 교과서 서술」, 『역사교육논집』 34, 2005, 60~61쪽.

28) 이찬희, 앞의 논문, 2004, 208쪽.

모두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조선 후기 사회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자생적 발전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를 발전적 시각에서 보고 한국 민족을 한국사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 공통의 한국사 인식을 추출해 볼 여지가 있다.

북한 교과서에는 예술적 재능이나 기술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며, 금속활자, 고려청자, 훈민정음 등 우리 민족이 이룬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의학 발달과 화가들의 활동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창조성을 드러내어 민족적 긍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담징, 허준, 김홍도, 신윤복, 장영실 등 남한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보인다. 남한 교과서는 시대별로 문화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교과서와 공통되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 교과서에는 대성산성, 동명왕릉, 공민왕릉, 보현사 등 남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북한 지역 문화유산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 정선, 강희안 등 문인 화가는 빠져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북한 교과서는 대외 항쟁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영웅의 활약보다는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살수대첩을 을지문덕의 능력보다도 고구려 군사 전체의 노력에 의한 승리로 서술하고 있다.³⁰⁾ 고려 시대 거란의 침입에 맞선 승리도 고려 인민의 승리였다고 평가하였다.³¹⁾ 임진왜란 때의 항전에서도 인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³²⁾ 물론 을지문덕, 서희, 강감찬, 이순신, 광재우 등 대외 항쟁에 큰 기여를 한 장수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이 남한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남한 교과서에도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³³⁾,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³⁴⁾ 등의 표현이 나온다. 외적과의 항쟁에서 특정 영웅을 집중 조명하지 않는다는 점은 남북한 교과서가 동일하다. 영웅 사관에서 탈피된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력사 6』에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활동, 독립 운동을 전개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준, 안중근, 홍범도, 채응언, 양기탁, 유관순 및 대한 자강회, 신민회 등 남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과 단체도 실려 있다. 항일 항쟁에서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북한 교과서는 농민 항쟁에 대한 내용도 많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망아망소의 난, 흥경래의 난, 임술 농민 봉기 등은 남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다. 다만 서술의 양과 명칭에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적고적의 난은 남한 교과서에 이름만 실려 있는 반면 북한 교과서에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³⁵⁾ 조위총의 난도 평양 농민 투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³⁶⁾ 남한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은 이시애의 난은 함경도 농민 전쟁으로 소개하고 있다.³⁷⁾ 표현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남한 교과서에서도 당시의 사회 모순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농민 봉기가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³⁸⁾ 남북한 교과서 모두에서 사회적 모순과 차별은 대규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재물이나 권력보다는 도덕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³⁹⁾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조선의 공후인, 삼국 시대의 도미 부부와 설씨녀, 망이와

29) 정두희, 『하나의 역사, 두 개의 역사학』, 소나무, 2001, 249~261쪽.

30) 오영철, 『조선력사 3』, 교육도서출판사, 2001, 32~34쪽.

31) 한영찬, 『조선력사 4』, 교육도서출판사, 2001, 17쪽.

32) 제갈명, 『조선력사 5』, 교육도서출판사, 2001, 20~27쪽.

33)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4, 70쪽.

34) 한철호 외, 위의 책, 2014, 116~117쪽.

35) 리인형, 『조선력사 1』 교육도서출판사, 2001, 62~64쪽; 오영철, 앞의 책, 2001, 68~69쪽.

36) 한영찬, 앞의 책, 2001, 26~27쪽.

37) 리태형, 『조선력사 2』 교육도서출판사, 2001, 38~41쪽; 제갈명, 앞의 책, 2001, 18~20쪽.

38) 남한 교과서에는 신라 말 대규모 봉기의 원인을 귀족의 가혹한 수취에서 찾았으며, 무신 정권기의 봉기도 지배 체제 붕괴로 인한 지방관들의 가혹한 수탈에서 찾았고, 세도 정치 시기의 봉기도 지배층의 수탈을 그 원인으로 서술하였다(한철호 외, 위의 책, 2014, 34, 73, 127쪽.).

김정호 딸의 효심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성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남한 교과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사 교육에 반영할 만하다.

이상 남북의 교과서를 통해 공통의 한국사 인식을 추출해 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남북으로 갈라져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한민족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민족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왔다는 점에서 남북은 충분히 공통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더하여 우리의 민족성에 대한 북한 교과서의 서술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바로 놓고 본다면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역사 인식과도 통할 수 있다.

III. 남북이 공유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전근대사 교육 방안

기독교 전래 이전의 한국은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유효한 상태에 있었고⁴⁰⁾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신 도덕률 아래에 있었다.⁴¹⁾ 이런 점에서 비록 기독교가 유입되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상을 지니고 있는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남과 북을 포함한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전근대사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도덕 의리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중에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역사 속에 나타난 선한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지어 이를 설명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먼저 살필 수 있는 것은 청렴하고 겸손하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였던 인물들이다.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은 남북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인물이다. 강감찬은 당시 고려인들이 추앙했던 인물로 설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강감찬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단순히 귀주 대첩을 통해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려사』에는 강감찬⁴²⁾에 대해 “성품이 청렴하고 검약하여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부상서 시절 개령현에 있던 자신의 밭 12결을 군호(軍戶)에게 준 사건이 실려 있다.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과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았던 자세로 인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이다. 강감찬은 ‘이웃 사랑’의 실천자라 할 수 있다. 더하여 『고려사』에는 강감찬에 대해 “체구가 작는데다가 얼굴이 못생겼으며 의복은 더럽고 헤어져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전한다. 작은 키와 못생긴 얼굴은 현대 사회에서 외모 콤플렉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강감찬에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웃 사랑’의 실천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강감찬은 외모가 아닌 내적 성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에 큰 기여를 하였던 김육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였던 인물이다. 김육은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시행을 이끌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동법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김육은 어렸을 때 『소학』을 읽다가 “一命의 선비라도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사람에게 반드시 구제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에 감화하여 평생의 신조로 삼은 바 있다.⁴³⁾ 이에 주위의 온갖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호서 대동법 실시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대동법을 처음 건의하였던 이원익 역시 청백리 관리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였는데, 40여 년간 정승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사직 후 몇 칸의 초가집에서 살았다.⁴⁴⁾ 청렴함과 남을 위하는

39) 리인형, 『조선력사 6』 교육도서출판사, 2002, 37, 40쪽.

40) 원종천, 앞의 논문, 2004, 234~235쪽.

41) 김영재, 앞의 논문, 1994, 138~139쪽.

42) 『高麗史』 권94, 列傳 7, 姜邯贊

43) 『燃藜室記述』 권30, 孝宗朝, 故事本末

마음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신이라는 점에서 청백리 관리의 삶과 활동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고려 무신 정변 시기에는 많은 문신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때 무신과 군인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았던 함유일,⁴⁵⁾ 서공⁴⁶⁾, 유응규⁴⁷⁾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함유일은 평소 검소한 생활로 병사들의 신망을 얻었으며, 서공은 재상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처신하였고, 유응규는 뇌물을 멀리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들은 무신 정변이라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고려 말 최고 실력자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유훈을 깊이 새기며 청렴하게 정치를 이끌었고 최영⁴⁸⁾ 역시 남북 교과서에 모두 실려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선행의 은혜 즉 聖化의 은혜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⁴⁹⁾ 웨슬리 역시 진정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행의 규칙'을 만들어 평생 지키게 하였다.⁵⁰⁾ 고려조선 시대 청백리 관리의 삶을 통해 선행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조선 후기에 부를 쌓아 올린 일반 백성들에게서도 살필 수 있다. 남북 교과서 모두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발전을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농업수공업상업 분야에서 축적한 부를 활용하여 나눔을 실천한 인물들을 살필 수 있다. 상업에서는 의주의 만상 임상옥, 제주 상인 김만덕 등이 있다. 임상옥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진흥에 보태는 일을 하였으며,⁵¹⁾ 김만덕은 1795년 제주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1천금을 내놓았던 인물이다.⁵²⁾ 수공업 분야에서는 한순계를 들 수 있다. 한순계는 이이, 성혼 등과 교류하였던 文士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유기그릇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만든 그릇은 정교하고 가격도 안정되어 장사꾼들이 그에게 모여들자 다른 工匠에게 양보하고 이익을 독차지하지 않았다고 한다.⁵³⁾ 임상옥과 김만덕은 자신이 이룬 부를 이용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 인물들이며, 한순계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홀로 이익을 독점하기 보다는 동종 업계의 사람들의 형편도 고려하였던 인물이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경주의 부농 최부자집을 들 수 있다. 최부자집은 300여 년간 이어오면서 적정 이윤만 추구하면서 주위의 빈민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⁵⁴⁾ 웨슬리는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며 충분히 선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인류의 삶에서 고귀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으며,⁵⁵⁾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노력하여 많이 벌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고 하였다.⁵⁶⁾ 웨슬리가 말한 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의 주장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실학자들은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정전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자영농을 육성하고 빈부 격차를 줄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시되었다.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영영히 파는 것'을 금하

44) 『仁祖實錄』 29권, 仁祖 12년 1월 29일 丙辰

45) 『高麗史』 권99, 列傳 12, 咸有一

46) 『高麗史』 권94, 列傳 7, 徐恭

47) 『高麗史』 권99, 列傳 12, 庾應圭

48) 『高麗史』 권113, 列傳 26, 崔瑩

49) 한철하, 「한국 교회의 진로」, 『ACTS와 21세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45~50쪽.

50)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감신, 2003, 36~40쪽.

51) 『備邊司謄錄』 220책, 純祖 32년 6월 11일

52) 『正祖實錄』 45권, 正祖 20년 11월 25일 丙寅

53) 『里鄉見聞錄』 권1, 韓市隱舜繼

54) 진진문·이건, 「慶州 崔富者의 家業維持와 經營理念에 관한 研究」, 『經營研究』 31, 2001, 281~287쪽.

55) 김진두, 앞의 책, 2003, 114~116쪽.

56) 김진두, 위의 책, 2003, 49~56쪽.

면서 희년이 될 때마다 산 땅을 그냥 돌려주도록 하거나(레 25:23~28) 가난한 자를 위해 밭모퉁이의 곡물을 남겨두도록 한(레 19:9, 23:22)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하는데(마 5:44) 이에 대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과 모양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보여준 것이라 하였다.⁵⁷⁾ 우리 역사에서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 이른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공과 사를 구분하여 접근한 경우는 볼 수 있다. 조선 영조의 탕평책에 동의하며 균역법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박문수가 대표적이다. 박문수는 소론 출신으로 신임사화 때 조태채와 대립하며 원수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영조 초 조태채의 아들 조관빈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극형에 처하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공적인 판단에서 볼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⁵⁸⁾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던 이순신은 원균과 오랫동안 不和하였다. 그러나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마땅히 저들에게 공이 있다고 말하고 잘못은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다.⁵⁹⁾ 왜적을 무찌르기 위해 아군끼리 다투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였다고 해서 죄까지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죄로,⁶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죄 사함이다.⁶¹⁾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들추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기보다는 침략당한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피해를 입힌 경우가 기록에 남은 것이 별로 없다. 그래도 광복 이후에 참전하였던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이나 성폭행 사건 등은 반성해야 함을 다룰 필요는 있다.⁶²⁾ 일본의 강제 징용징병과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다루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에서 지배층 중심으로 일어났던 잘못들도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지배층의 폐단과 악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판하는 배경이나 대상은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은 있다. 고려 의종 시기 김돈중, 한희 등 문신들이 무신들에게 벌인 행패가 결국 무신 정변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⁶³⁾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해공왕과 공민왕의 성격 문란의 결과는 권선징악적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해공왕은 정치를 돌보지 않고 여색에 빠져 살다가 결국 김지정의 난 때 피살을 당하였다.⁶⁴⁾ 신라 중대 무열왕계가 끊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해공왕의 성격 문란과 실정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공민왕은 말년에 子弟衛 출신인 홍윤 등에게 그의 비빈들을 억지로 범하게 하여 익비를 임신시켰는데, 결국 홍륜, 최만생 등에게 암살을 당하였다.⁶⁵⁾ 모든 악인들이 바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행위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경우는 비판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죄악도 살필 수 있다. 조선 시대 성리학적 질서의 확대로 나아진 점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 하락과 더불어 여성의 재가 금지 및 정절 강요가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순절할 것을 강요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또한 고려 말부터 확산되던 첩을 두는 현상도 조선 시대에 크게 확산되었다. 조선 시대에 남성들은 첩을 들이는 것에 대해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호기로운 행위로 여겨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는 상층 여성의 성은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하나 하층 여성의 성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⁶⁶⁾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성 의식으로 인해 한말에

57)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증보판, 2011, 261~262쪽.

58) 『大東奇聞』 권4, 英祖朝, 朴文秀以讐爲恩

59) 『燃藜室記述』 권18, 宣祖朝, 故事本末

60) 한철하, 앞의 책, 2011, 35~37쪽.

61) 한철하, 위의 책, 2011, 222쪽.

62)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2000.

63) 『高麗史』 권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64)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9, 惠恭王 16년

65) 『高麗史』 권89, 列傳 2, 后妃 2; 『高麗史』 권131, 列傳 44, 叛逆 5, 洪倫

는 돈을 주면 자신의 차첩에게 손님의 잠자리를 시중들게 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⁶⁷⁾ 이는 사회적 강자인 남성
에 의한 성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뿐만 아니라 한말에는 강한 남성이 약한 남성을 성적으로 억압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탐관오리들 사이에서 남색은 출세의 무기였다고 전하며,⁶⁸⁾ 한양에서 男色の 풍이 심하여 미
소년을 두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고 한다.⁶⁹⁾ 또한 모르는 소년이 마을을 지나갈 때 능욕하는 풍습도 전한다.⁷⁰⁾
이에 1890년대에 京城에는 男色商이 있어 공공연히 자신의 엉덩이 살을 팔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한다.⁷¹⁾ 또한 증언에 따르면 1940년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남성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있었다가 이후 갑작스
럽게 사라졌는데, 주로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10대의 어린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⁷²⁾ 이런 성적 억압은 조선
초에도 일부 확인되는데, 세종 시기에 병조판서를 지낸 李宜이 자신의 사내종을 첩처럼 부렸다고 한다.⁷³⁾

이렇게 사회적 강자에 의한 약자의 성 억압 행위는 자신의 성적 유희와 만족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
라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
는 점에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기독교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의 추악한 모습을 무조건
감추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칼빈은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발달시킨 정치, 과학, 문예 등의 지식은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시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나온 유익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였다.⁷⁴⁾ 우리 민족은 정치 제도, 과학 기술, 문예 등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반은총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과학 기술과 문예의 발전 등은 남북의 교과서 모두 우리 민족의 재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세
히 다루고 있다.

다만 북한 교과서는 이런 부분에서 소수의 영웅보다는 일반 백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삼
국의 문화 발전에 대한 서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인민의 활동을 강조하였고, 팔만대장경은 고려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인쇄물이라고 표현하였다. 훈민정음의 경우도 세종이 우수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놓고 만
들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민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 활동한 화가들의
경우는 도화서 화원이나 신분이 낮은 인물들을 주로 소개하였다. 대체로 과학 기술이나 예술의 발달에 공헌한 이
들은 신분이 낮은 인물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세종 시기 과학 기술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던 장영실은 천인 출
신이었다. 음악, 미술, 기예 부분에 종사하였던 인물에는 지배층이 드물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 교과서의 서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칼빈 신학은 조선 시대 사농공상을 구별하는 의식과 천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깨
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⁷⁵⁾
이런 점에서 직업과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민족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던 행동을 칭송하는 것도 기독교적 가
치를 담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문예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대간 제도와 실록 편찬이다. 대간
제도는 왕과 고위 관료, 하급 관료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역할

66) 이성임,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古文書研究』 33, 2008, 323쪽.

67) 如囚居士, 『朝鮮雜記』, 春詳堂書店, 日本 東京, 1894, 38쪽.

68) 『동아일보』 1932년 3월 19일, 同性愛漫談(동성애만담) (二(이))

69) 『別乾坤』 제3호, 1927년 1월 1일, 朝鮮八道正月風俗展覽會

70) 『別乾坤』 제11호, 1928년 2월 1일, 全朝鮮 怪風俗展覽會, 入場無料

71) 如囚居士, 앞의 책, 1894, 42쪽.

72) 박관수, 「1940년대의 ‘남자동성애’ 연구」, 『비교민속학』 31, 2006, 391~407쪽.

73) 『世宗實錄』 116권, 世宗 29년 4월 18일 己酉

74) 한철하, 앞의 책, 2011, 33~34쪽.

75) 한철하, 앞의 논문, 2004, 71~73쪽.

을 하였다.⁷⁶⁾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명언처럼 절대 권력은 부패로 이어지고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정치경제 등의 제도를 교육하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룰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도 왕의 언행을 일일이 기록하여 왕들로 하여금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⁷⁷⁾

북한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의 착한 심성과 뛰어난 도덕성을 지닌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도미 부부, 설씨녀 이야기 등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후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은 남의 불행과 슬픔을 동정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민족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⁷⁸⁾ 제시된 자료의 사실성은 논란이 있으나 한국사를 통해 도덕적 심성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며, 기독교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도미 부부 이야기는 북한 교과서에만 실려 있는데, 도미 부인의 정절과 지배층의 포악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⁷⁹⁾ 『삼국사기』에 전하는 도미 부부 이야기는 얼핏 보면 도미 부인의 정절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를 강조한 이야기임을 살필 수 있다.⁸⁰⁾ 이런 점에서 도미 부부 이야기는 부부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기독교적 가정관을 담을 수 있는 소재이다.

강수는 신라 무열왕 김춘추의 외교 활동을 보좌했던 유학자이다. 교과서에서는 외교 문서 작성에 뛰어났다는 점만 부각되어 있는데, 신라 시대 바른 부부 윤리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강수는 일찍이 부국 지역에 사는 대장장이의 딸을 사랑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읍에 사는 여인과 혼인시키려 하였다. 이때 강수는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가난하거나 신분이 찬한 것은 부끄러워할 바가 아닙니다. 도리를 배우고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부끄러워할 바인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⁸¹⁾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여러 조건을 따지는 현대 사회에 경종을 주는 말이다.

북한 교과서에는 구진천의 이야기도 자세히 실려 있다. 구진천은 신라의 삼국 통일 무렵에 활동하였던 쇠뇌 기술자였다. 당시 신라에는 천 보나 날아가는 쇠뇌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무왕 9년(669년) 당 황제의 명으로 당에 건너가 쇠뇌를 만들게 되었다. 이때 구진천은 자신의 재주를 감추어 30보·60보밖에 나가지 않는 허술한 쇠뇌만 만들어 바쳤다. 국가의 기술을 타국에 넘기지 않으려는 행동은 국가에 대한 충의 한 형태로,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북한교과서는 문익점과 김정호도 애국자로 평가하는데, 문익점은 고국의 백성을 생각하여 목화씨를 몰래 들여와 보급하였다는 점에서, 김정호는 통치 세력의 박해에도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두 인물은 남한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민족의 안녕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은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해 볼만한 충의 모습이다.

북한 교과서는 효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신라 시대 설씨의 딸, 고려 시대의 망이, 조선 후기 김정호의 딸 등의 효성스러움을 언급하고 있으며, 소설 심청전의 심청의 효도 언급하고 있다. 남한 교과서는 효와 관련된 것은 세종 때의 『삼강행실도』 편찬 정도만 다루고 있다. 효 즉 부모 공경은 십계명의 하나일 정도로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다. 우리나라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노인 공경과 효를 중시하였는데, 신라 원성왕 때 실시하였던 독서삼품과에서는 『효경』을 상중하품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지정하였다.⁸²⁾ 또한 『삼국사기』 열전에는 향덕, 성각, 지은 등 효자효녀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⁸³⁾ 충과 효가 전근대적 윤리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다루기보다는 현대에도 필요한 덕목임을 알고 다룰 필요가 있다.

76) 이성무,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청아출판사, 2000, 25~42쪽.

77) 李成茂, 「『朝鮮王朝實錄』과 韓國學研究」, 『民族文化』 17, 1994, 32쪽.

78) 리인형, 앞의 책, 2001, 13~15쪽.

79) 오영철, 앞의 책, 2001, 47쪽.

80) 손정인, 「〈都彌傳〉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語文學』 80, 2003, 367~368쪽.

81) 『三國史記』 권46, 列傳 6, 強首

82)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10, 元聖王 4년

83) 『三國史記』 권48, 列傳 8

IV. 근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방안

근현대사는 기독교 전래 이후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임했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다만 남북한 교과서에서는 기독교의 역할을 한정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구속사의 모습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 교과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남한 교과서도 근대 이후의 경우 종교계의 활동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근대 시기의 경우 기독교에 대해 근대 교육의 발달과 서양 의술의 보급, 양성 평등 의식 전파 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⁸⁴⁾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⁸⁵⁾ 기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는 자유의 확대 현상을 살필 수 있는데, 지배층의 규모 확대를 통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즉 신라 시대에는 진골 귀족이 사회를 이끌었다면 고려 시대에는 보다 규모가 확대된 문벌 귀족이 사회를 이끌었고, 조선 시대에는 양반이 사회를 이끌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 변동을 거치면서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말까지도 양반의 특권 의식과 하층민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노비 매매는 이루어졌고, 백정은 천대를 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근대 이후 우리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서술하였다. 남한 교과서는 근대 이후 주요 사건과 당시 상황을 나열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흥선 대원군의 개혁, 1880년대 초의 개혁,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의 주장을 반영한 갑오을미개혁,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 독립 협회의 활동, 애국 계몽 운동 등을 서술하고, 사회문화적 변화 상황을 서술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우는 국외 독립 운동과 국내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식민지 시기 일상생활의 변화된 모습을 덧붙였다. 광복 이후는 정부 수립 과정과 제헌 국회의 활동,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경제사회적 변화, 통일 노력 등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나열식 서술로 인해 변화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주고 있다.

북한 교과서는 근대를 일본 군국주의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우리 인민이 투쟁한 시기로 묘사하고 있다.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의 추진과 실패를 다룬 뒤 일제가 여러 조약을 통하여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이 의병 활동과 애국 계몽 운동, 반일 독립 운동을 전개한 것을 서술하였고,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한계를 덧붙였다.

우리 민족은 근대화를 통해 양반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바뀌어갔다. 그런데 갑오개혁, 광무개혁 등 불완전한 개혁이 한국 사회를 일순간 바꾸어놓지는 않았다. 성리학적 사고에 빠져있던 조선인들의 삶과 생각이 몇몇 제도 개혁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었다. 한말에 근대 시민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다. 미국 등을 통해 유입된 기독교는 단지 종교로서만 유입된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를 전한 서구의 근대 시민 사회의 전통도 같이 들어왔다. 교회 안에서부터 신분 차별과 여성 억압 해소, 노동 중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등이 일어났다. 칼빈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은혜로 인해 선행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⁸⁶⁾ 웨슬리는 오직 사랑을 낳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사랑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였다.⁸⁷⁾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는 사랑의 마음도 갖게 되어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도 이르렀다. 기독교는 하층민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인 양반들의 인식을 바꾸어⁸⁸⁾ 우리 사회에 평등사상을 확대시켰다. 기독교자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

84) 한철호 외, 위의 책, 2014, 232쪽.

85) 한철호 외, 위의 책, 2014, 276쪽.

86) 한철하, 앞의 책, 2011, 102~104쪽.

87) 김진두, 앞의 책, 2003, 36~37쪽.

88) 박정신, 『근대 한국과 기독교』, 민영사, 1997, 201~202쪽.

량의 은혜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갑오개혁 때 과부의 재가 허용, 조혼 금지 등 구습을 타파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혼 폐지는 일제 시대에도 계속 요구되었다.⁸⁹⁾ 오히려 여성권 향상은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다. 1886년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여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는데,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부부의 겸상, 아내에게 존댓말 사용, 축첩 폐지 등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와 기독교 가정을 통해 나타났다.⁹⁰⁾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남편 박유신은 아내의 유학에 동행하여 아내가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⁹¹⁾ 아내의 꿈을 위해 남편이 희생하는 것 역시 조선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을 지녔던 조선인들 사이에 기독교 신앙이 유입되면서 점차 남녀를 동등하게 보려는 시각이 확대되었다.⁹²⁾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1899년 교회 부녀자를 중심으로 여우회가 조직되어 축첩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⁹³⁾ 축첩은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선 시대에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제 시기에는 하층민까지도 첩을 둘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내의 간통만 처벌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야기하였다.⁹⁴⁾ 간통쌍벌죄는 1953년에 가서야 통과되었고,⁹⁵⁾ 이후 점차 축첩중혼의 풍습은 사라져 갔다. 우리 사회에서 축첩 금지는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890년대부터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축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첩을 둔 교인을 제명시켰다.⁹⁶⁾ 당시 사회 분위기와 달리 기독교는 축첩이 잘못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축첩은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이면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나 여성권 향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 시대에 남성의 축첩과 중혼, 외도 등과 관련한 갈등이 확대되면서 점차 여성에게만 의무로 부여되어 있었던 정조는 남녀평등의 관념 속에서 정조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여성들에 의해 남성에게도 요구되어졌다.⁹⁷⁾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정조를 지키는 것이 보편적인 성 관념으로 확대되었다. 여성권 향상과 함께 성을 유희의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비제는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1907년 태극학보에 실린 논설에는 인신매매의 악습을 폐하고 노비를 일제히 해방하자는 주장이 실려 있다.⁹⁸⁾ 또한 사환 노비였던 자들은 물질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노비 신분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주인집에 머물며 노비 시절과 별다른 것 없는 생활을 하였다.⁹⁹⁾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비는 주인집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노비를 속량하고 가족으로 받아주기도 하였다.¹⁰⁰⁾

백정들은 조선 시대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다. 백정은 천민 중의 천민으로 인식되어 상민들에게까지 배척되었다. 그리하여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었어도 1920년대 형평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백정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5년 이후 무어 선교사의 후원으로 백정 신분 철폐 운동이 전개되었고, 백정과 동석하여 예배드리는 경우가 나타났다.¹⁰¹⁾ 1898년 10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개최된 관민공동회에

89) 1929년 7월 25일에 제정된 근우회의 행동 강령 중에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90)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59~160쪽; 박명수, 「놀라운 변화: 초기 한국 기독교와 가정」, 『역사신학논총』 12, 2006, 69~77쪽.
91) 윤선자, 「한말 박에스더의 미국 유학과 의료 활동」, 『여성과 역사』 20, 2014, 152~159쪽.
92) 李萬烈, 「기독교의 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개화」, 『淑大史論』 7, 1972, 35~38쪽.
93)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 一潮閣, 1971, 35쪽.
94) 소현숙,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21~225쪽.
95) 이임하, 「姦通雙罰罪의 제정 및 적용과정에 나타난 여성관」, 『史叢』 56, 2003, 134~135쪽.
96) 한규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결혼 문제 인식(1890~1940)」, 『한국 기독교와 역사』 10, 1999, 68~70쪽.
97) 이임하, 앞의 논문, 2003, 262~274쪽.
98) 太極學會, 「習慣改良論」, 『太極學報』 10, 1907, 10~14쪽.
99) 趙誠倫, 「상민·천민층의 성장」, 『한국사 44 -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국사편찬위원회, 2002, 351~352쪽.
100) 김인수, 앞의 책, 1994, 160~161쪽.

서는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연설을 하였는데, 백정이 양반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건이었다. 물론 '백정의 동석 예배는 진주 지역 교회에서 좌절을 맛보는 등 한계는 있었다.¹⁰²⁾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백정을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한 교과서에는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날 무렵 농민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는데, 당시 매관매직과 지방관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감하기 어렵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황현의 『매천야록』에 보면 대한제국 시기에도 국가 차원에서 많은 돈을 받고 지방관 자리를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저항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기독교가 덜 보급된 지역의 지방관을 원하기도 하였다.¹⁰³⁾ 한말에 교회는 관리들의 수탈로 힘들어하던 백성들의 의지처였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민족운동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890년대 민중 계몽과 민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던 독립협회나 1907년 성립되어 민족운동을 전개한 신민회의 결성 및 활동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¹⁰⁴⁾ 1900년대 일제의 침략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항일 독립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 장소였다.¹⁰⁵⁾ 1919년 3·1 운동에서도 기독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⁰⁶⁾ 다만 이러한 운동은 기독교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사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역할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참여한 일에 기독교계의 역할만 부각시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과서에는 이준, 이승훈, 양기탁, 유관순, 강우규, 김상옥, 김구 등 기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인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계가 민족운동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이준 열사의 경우 헤이그 특사로 선택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동교회의 엽윗청년회가 중심이 된 을사조약 폐기 운동 과정에서 대표로 상소문을 지었던 사실을 다룰 수 있다.¹⁰⁷⁾ 대한인 노인 동맹단 소속으로 1919년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의 경우는 재판정에서 일본 총독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만국 공법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의거를 결심하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¹⁰⁸⁾ 3·1 운동의 민족 대표로 참여하였던 이승훈도 재판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¹⁰⁹⁾이었다고 말하였다. 강우규와 이승훈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더하여 두 사람의 활동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점에서 민족운동을 불러일으켰는지 설명하기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의 경우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시절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1903년경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것과 광복 이후 교회 행사에 자주 참석하였다는 것은 확인된다.¹¹⁰⁾ 김구는 1931년 이후 임시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남한 교과서에는 김구의 임시정부 사수파가 1935년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였으며 1940년 한국 독립당으로 이어졌음을 다루고 있다. 뒤에 조소앙 등이 민족혁명당에 대해 무산계급독재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며 탈당을 하였던 것을 보면¹¹¹⁾

101) 임순만, 「기독교 전파가 백정 공동체에 미친 영향」, 『형평 운동의 재인식』, 솔, 1993, 80~97쪽.

102) 임순만, 앞의 논문, 1993, 98~99쪽.

103) 이만열, 「韓末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韓國史論』 1, 서울대학교 한국사학회, 1973, 355~357쪽.

10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259~266, 1989, 292~302쪽.

105) 박정신, 앞의 책, 1997, 208~215쪽.

10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0, 30~41쪽.

107) 이만열, 「이준 열사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역사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27쪽.

108) 『基督申報』 1920년 3월 3일

109) 金基錫, 『南岡 李承薰』,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200쪽.

110) 이만열, 「백범 김구 - 민족과 신앙을 일치시키려는 생애」, 『역사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12~115, 129~130쪽.

민족혁명당은 공산주의 계열이 주도한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배격하였는데, 임시정부 사수파에는 기독교, 대종교, 천주교 등 종교를 지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당의 이사였던 송병조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인물이었다.¹¹²⁾ 이렇게 임시정부 사수파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임시정부, 김구와의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광복 후 김구는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협상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김구는 죽는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꿈꾸었던 인물로, 「나의 소원」¹¹³⁾이라는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자신의 소원임을 밝혔다. 김구는 완전한 독립을 이룬 뒤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우리나라에 먼저 실현하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가족과 이웃과 동포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민족으로, 한 없이 주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즐거운 것을 권하던 민족이었음을 말하였다. 김구는 1946년 어느 교회에서 했던 연설 「밀(麥) 한 알이 따에 떠러져 죽으며」에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자.”라고 하였다.¹¹⁴⁾ 「나의 소원」에서 말한 인의와 자비와 사랑의 정신이 배양된 문화를 지닌 세상,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의 이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김구의 글을 통해 기독교적 이상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생명을 바치기도 하였다. 이회영·이시영 가문, 이상용 가문처럼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내놓은 가문도 있었다. 김구가 우리 민족에 대해 나누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던 것은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었던 많은 동포들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임시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성금을 보냈다.¹¹⁵⁾ 기독교는 근대 시기부터 병원·학교 설립, 복지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사회 복지에 공헌해 왔다.¹¹⁶⁾ 기독교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매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의 공적은 과거의 일일 따름이다. 과거의 기독교 신자들이 당시의 문제에 기여하였던 것처럼 현재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사랑의 실천과 불의에 대한 선한 투쟁으로 이 땅을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우리 민족은 몇 차례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7세기 중엽 신라는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는데, 토번의 성장으로 당이 신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 중기에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몽골의 침입을 받고도 국가 체제를 유지하였다. 고려 원종과 원 세조 쿠빌라이의 극적인 만남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 1년 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에 임명되면서 조선은 일본과의 7년 전

111) 趙凡來, 「韓國獨立黨의 變遷과 活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6, 1997, 66~68쪽.

112)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⑩』, 사인코리아, 1997, 39쪽.

113) 白凡金九先生記念事業委員會, 「白凡 金九先生の “나의 소원”」, 『국토통일』 33, 39~44쪽.

114) 이만열, 앞의 책, 2007, 129~130쪽.

11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 1990, 60쪽.

116) 임성빈,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신앙과 학문』 49, 2011, 174~176쪽.

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수군이 괴멸되었다면 조선은 반격할 틈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에 무릎을 꿇고도 조선은 멸망하지 않았다. 조선은 티베트나 내몽고와 같이 청에 완전히 복속되는 처지가 되지는 않은 것이다. 일제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동화 정책을 극복하고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승리에는 외세에 저항한 우리 민족 전체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극적인 부분도 있었다. 함석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남을 박해한 일이 없고 不仁之心의 '착함'을 지녔기 때문에 세계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를 선사했던 것은 아닐까도 한다. 제국주의 세계 침탈에 참여하였던 서구 열강이나 일본,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공한 중국이나 몽골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변 세력을 괴롭힌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인류 평화의 중심에 설만한 나라이다. 이런 점에서 한철하 박사님이 언급한 '기독교 한국'은 세계 평화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남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는 공통된 점도 있다. 또한 북한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으로 언급한 내용들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역사 인식과 통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한국'을 통해 남북한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전 세계 화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은총을 통해 한국사에 나타난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백리 관리의 삶과 정책, 조선 후기 부자들의 나눔 활동 등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펼친 인물의 몰락 속에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살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창조성을 통해 이룬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유산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제도 등도 살필 수 있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부부 윤리와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볼 만한 충과 효의 개념도 살필 수 있는데, 기독교적 가정관 등을 담아볼 수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남과 북은 물론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해 한국 사회의 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일상에서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신분제 사회는 서서히 해체되어 갔고, 여성권 향상과 함께 성을 유희의 수단으로 여기던 행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봉건 지배 세력이나 일제 등 불의한 세력에 항거하는 데에도 앞장을 섰다. 근대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바꾸어 나갔다. 불평등 해소나 사회 부조리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방식은 타인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스스로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노비를 풀어주고 하층민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는 방식의 개혁은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적인 변혁은 사람들의 불만을 쌓게 할 따름이다.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방식이어야말로 모두의 불만 없이 사회 부조리를 해소하고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물론 인간 세상에는 누군가의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인 선행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제도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대간제도 정비, 대동법 추진, 신분제 및 축첩 폐지 등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미치는 것을 가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개인의 변화를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노력이 모두 필요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성적인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갑오개혁 시기에 축첩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 시대에 첩을 두는 행위는 하층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조선잡기』에 묘사된 한말 조선의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다. 1890년대 조선은 화간과 강간의 악풍이 만연하였고, 돈만 주면 처첩에게 손님의 잠자리를 시중들게 하였으며, 남색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한다. 정절

은 양반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있었으며, 힘 있는 남성의 성적 유희 추구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악습 폐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과 여성권 향상으로 완화되었으나 새로운 형태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성을 출산과 가족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유희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성을 유희의 도구로 여길 경우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상은 확대되고 불행 속에 놓이게 될 영혼은 늘어날 것이다. 성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성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해공왕, 천추태후와 목종, 공민왕, 임해군 등 성적 타락이 심했던 인물들의 몰락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기독교적 가치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한국사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글은 한국사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며 한국사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본 것이다. '기독교 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사 교육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남북한 한국사 교과서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북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이용해 보았던 것은 차이만을 강조해서는 남북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북의 공통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민족의 화합을 위한 한 방법이라 본다. 이는 각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자매로 품는 기독교의 정신과도 통한다.